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동부지방검찰청<br/>전문공보관 손진욱<br/>(전화 02-2204-4201)</p> | 2024. 7. 31.(수)   |
|   |  | <p>주책임자: 합동수사단장<br/>자료문의: 합동수사단<br/>(전화 02-2204-4963)</p> |

##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 활동기간 연장 - 「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」에 범정부·유관기관 총력 대응 지속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(‘합수단’, 단장 홍완희)은 검찰, 경찰, 국세청, 관세청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·유관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'22. 7. 29. 출범한 이래,
  - 해외 콜센터 조직,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, 대포유심·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수사를 전개하여 현재까지 **628명**을 입건하고,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하여 총 **201명**을 구속하였습니다.
- 합수단 중심의 적극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2021년 7,744억 원에서 **2022년 5,438억원, 2023년 4,472억원**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,
  -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「조직적 비대면(非對面) 사기범죄」는 ① 범행 단계별 분업화·전문화, ② 중소규모 조직의 난립 및 가담층 다변화, ③ IT 환경을 바탕으로 한 범행수법 고도화 등으로 **진화·확산**하는 양상이며,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(2024년 1~6월 피해금액 3,242억원).
- 이에 합수단 참여기관들은 ‘원팀’으로 유기적 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합수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,
  - 향후 ① 분업화·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하고, ②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, ③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# I

## 합수단 출범 후 2년간 주요 활동

- 합수단은 '22. 7. 29. 출범 이래로 검찰, 경찰, 국세청, 관세청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감독원,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·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명이 '원팀'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합동수사 진행
  - ※ ▲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관련 정보 ▲국세청의 대포통장 등 개설 유령법인 관련 정보 ▲관세청의 환치기 계좌 관련 정보 ▲방송통신위원회의 범행 이용 통신기기 관련 정보 ▲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의 해외도피사범 및 외국인사범 관련 정보 등에 대한 통합 분석을 바탕으로 ▲검찰·경찰이 초기 압수수색 단계부터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 진행
- 해외 콜센터 조직,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, 대포유심·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수사로 현재까지 628명을 입건하고,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하여 총 201명 구속

### ■ 암장될 뻔한 보이스피싱 '콜센터' 조직 전면 재수사로 조직원 일망타진

- 피해자 신고로 조직원 일부가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후 4년간 수사 중지되었던 사건을 계좌분석, IP추적 등 전면 재수사하여 총책 등 27명 입건한 후 전국으로 흩어져 도주한 조직원 20명 구속

※ '23. 12. 27. 보도자료 (암장될 뻔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일망타진)

### ■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한 '중계기' 유통 다국적 조직 적발

-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번호 표시 변작(070 → 010)을 위한 중계기, 무선라우터, 대포유심 등을 공급하는 중계기 유통조직 3개를 적발, 태국·러시아 등 다국적 조직원 53명 구속

※ '23. 7. 25. 보도자료 (전문·분업화된 발신번호 표시변작 조직 엄단)

'24. 3. 20. 보도자료 (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)

### ■ 보이스피싱 조직에 '대포통장·대포유심' 공급한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

-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 진행하여 조직폭력배와 은행원까지 연루된 대규모 대포통장·대포유심 유통조직 8개를 적발, 총책 7명 등 조직원 44명 구속

※ '23. 7. 13. 보도자료 (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)

'24. 5. 13. 보도자료 (대포통장·대포유심 대규모 유통 5개 조직 적발, 22명 구속)

- 보이스포싱 조직의 와해를 목표로,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도피 조직원 검거 및 은닉된 범죄수익 추적·환수도 적극 추진

■ 해외도피 보이스포싱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송환, 구속

- 말단 현금수거객들만 처벌된 채 수사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하여 총책 등 상위 조직원들을 특정한 후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, 여권 무효화 조치, 거류허가 연장 저지 등으로 19명을 강제송환하여 18명 구속

※ '23. 4. 6. 보도자료 (해외도피 총책을 끝까지 추적·송환하여 구속기소)

■ 보이스포싱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, 환수

- 차명계좌 추적 및 조직원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보이스포싱 범죄수익 은닉사범 구속,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 4억원 등 차명재산 추징보전 조치

※ '23. 7. 13. 보도자료 (보이스포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)

- 피해자 불특정으로 압수현금 1억 3천만원이 보이스포싱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상황에서 범죄집단활동 및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기소로 전액 몰수, 국고귀속

※ '23. 4. 3. 보도자료 (범죄단체 법리 적극 적용, 보이스포싱 범죄수익금 몰수)

- 아울러,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, 홍보·교육 등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

■ 대포유심 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명의자 1명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다회선 개통 가능한 제도상 허점으로 대포유심이 대량 유통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전달,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 제한 방식 개선

※ 명의자 1명당 통신사별 150회선 → 전체 통신사 통합 3회선으로 제한 강화

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보이스포싱 현금수거객 모집 방지

- 국내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에 경고 팝업창(‘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포싱 현금수거객 모집 주의’) 게시, 허위 구인광고 차단 및 구직자 주의 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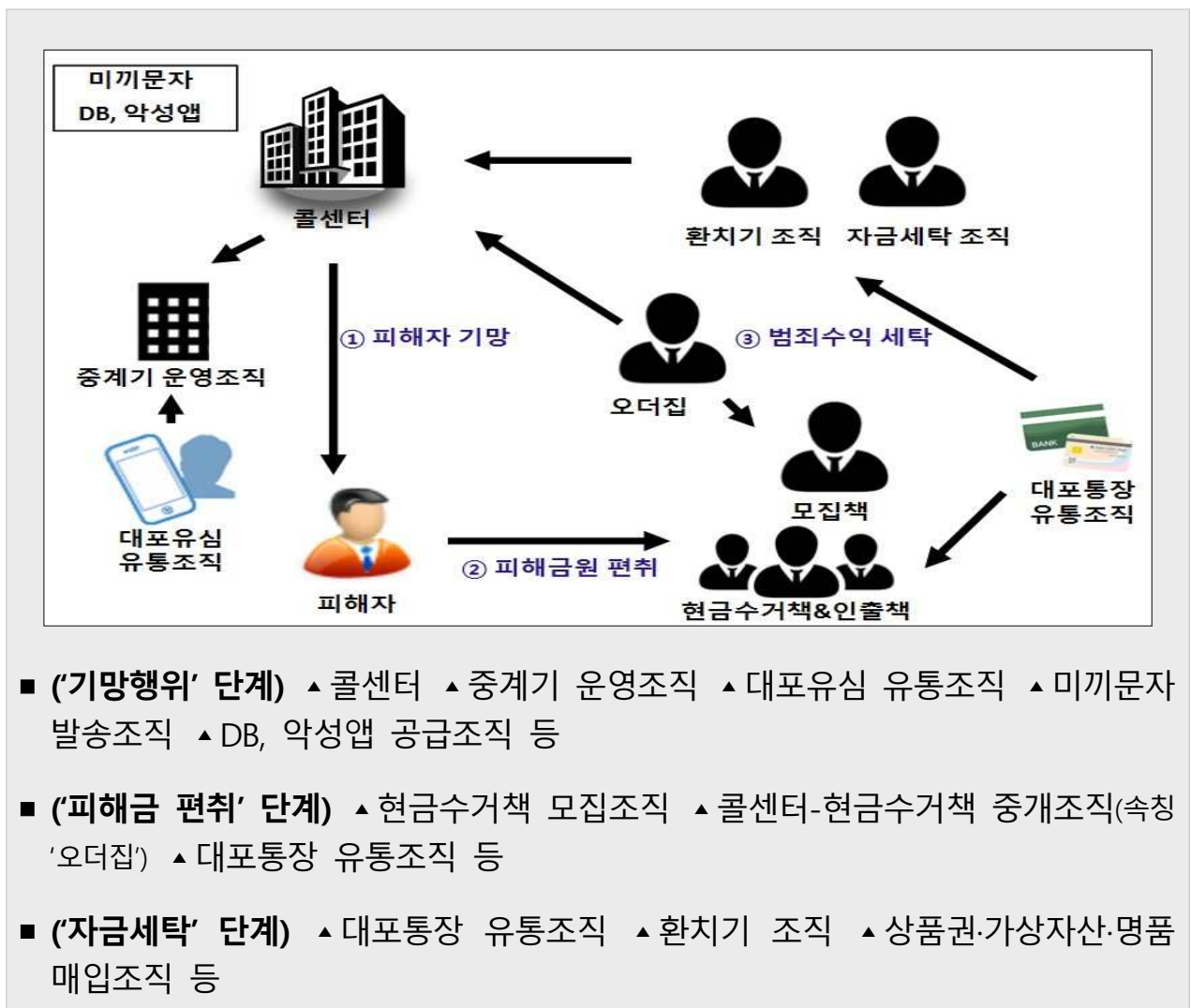
■ 홍보영상 제작, 예방교육 실시

- 검찰방송(검찰나우)과 연계하여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·배포하고, 군부대 방문하여 전역을 앞둔 장병 등에게 피해 예방 강의 실시

## II

# 「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」의 진화·확산 양상

- 그간의 수사를 통해 최근 보이스포싱을 비롯한 「조직적 비대면(非對面) 사기범죄」가 ① 범행 단계별 분업화·전문화, ② 중소규모 조직 난립 및 가담층 다변화, ③ 범행수법 고도화 등으로 진화·확산하는 양상 확인
- 「기망행위 → 피해금 편취 → 자금세탁」 순으로 진행되는 범행 단계별로
  - ▲ 콜센터 ▲ 중계기 운영조직 ▲ 대포유심 유통조직 ▲ 현금수거책 모집조직 ▲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이 별도로 운영되며 분업화·전문화 가속



- ('기망행위' 단계) ▲ 콜센터 ▲ 중계기 운영조직 ▲ 대포유심 유통조직 ▲ 미끼문자 발송조직 ▲ DB, 악성앱 공급조직 등
- ('피해금 편취' 단계) ▲ 현금수거책 모집조직 ▲ 콜센터-현금수거책 중개조직(속칭 '오더집') ▲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
- ('자금세탁' 단계) ▲ 대포통장 유통조직 ▲ 환치기 조직 ▲ 상품권·가상자산·명품 매입조직 등

- 기존의 대규모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분화하여 다수의 중소규모 조직이 난립하면서 전체 범죄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해외 거점(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,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) 및 가담층(사회초년생, 외국인 등의 가담 증가) 다양화

- 해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검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 탓에 **범죄전력 없는 20대 사회초년생들까지 해외 콜센터에 적극 가담**

※ 과거 사회초년생들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잘못 알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였으나, 최근에는 모집책과 SNS 등을 통해 수당 형태(인센티브제, 총액제)까지 사전에 협상한 후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도 확인

- 피해자와 대면 소통할 필요 없는 **중계기 운영책**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**외국인**이나 **미성년자**도 다수 가담하고 있는 실정

※ 중계기 운영조직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‘숙소 제공, 매주 80만원 제공’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직원으로 모집하고, 전국 각지의 원룸에 중계소 설치 후 1~2개월마다 폐쇄·이동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범행을 지속

-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에서 스미싱 문자 발송, 악성앱 유포, 위조 사이트 이용 등 **IT 환경을 바탕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** 되고, **기망 방식도 대출 알선 빙자, 수사·금융기관 사칭에서 주식·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, 부업 알선, 로맨스 스캠 등으로 급속히 다변화**

- 그간 합수단 중심의 강력 대응으로 **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2021년 7,744억원에서 2022년 5,438억원, 2023년 4,472억원으로 대폭 감소**했으나, 「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」의 진화·확산 양상과 함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**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위험을 보이는 상황**(2024년 1~6월 피해금액 3,242억원)

### [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(경찰청)]

| 연도          | '16    | '17    | '18    | '19    | '20    | '21    | '22    | '23    | '24<br>(1~6월)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접수<br>(건)   | 17,040 | 24,259 | 34,132 | 37,667 | 31,681 | 30,982 | 21,832 | 18,902 | 10,052        |
| 피해액<br>(억원) | 1,468  | 2,470  | 4,040  | 6,398  | 7,000  | 7,744  | 5,438  | 4,472  | 3,242         |

- 이에 합수단 참여기관들은 ‘원팀’으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「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」에 강력한 합동수사를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, **합수단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**하기로 결정

### Ⅲ

## 합수단 중심으로 범정부·유관기관 총력 대응 지속

### ▣ 분업화·전문화하는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

○ 「기망행위 → 피해금 편취 → 자금세탁」 단계별 범죄조직의 분업화·전문화 양상에 대응하여 합수단 내에 전담수사팀을 편성·운영 중

- 팀별로 ▲콜센터 ▲중계기 운영조직 ▲대포유심 유통조직 ▲현금수거책 모집조직(취업알선 사이트 등) ▲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각각 수사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

※ 합수단은 5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분야별 검·경 합동수사를 진행하고, 국세청·관세청·방송통신위원회·금융감독원 등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수사지원팀이 정보분석 지원

### ▣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기관간 협력 강화

○ ▲금융감독원의 계좌 지급정지 정보 및 국세청의 불법재산 추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범죄수의 특정·추적·환수 ▲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등록 및 출입국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담자 추적 ▲해외 수사 기관 및 대사관과 협력 채널을 통해 해외도피 조직원 송환·검거 지속 추진

○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밀수입되는 중계기를 통관 과정에서부터 적발하고, 수입업자 및 중계기 운영조직에 대한 추적·수사 진행

※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신형 중계기 실물을 세관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협조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관 및 정보공유 관련 협력 추진 (별첨 「참고사진」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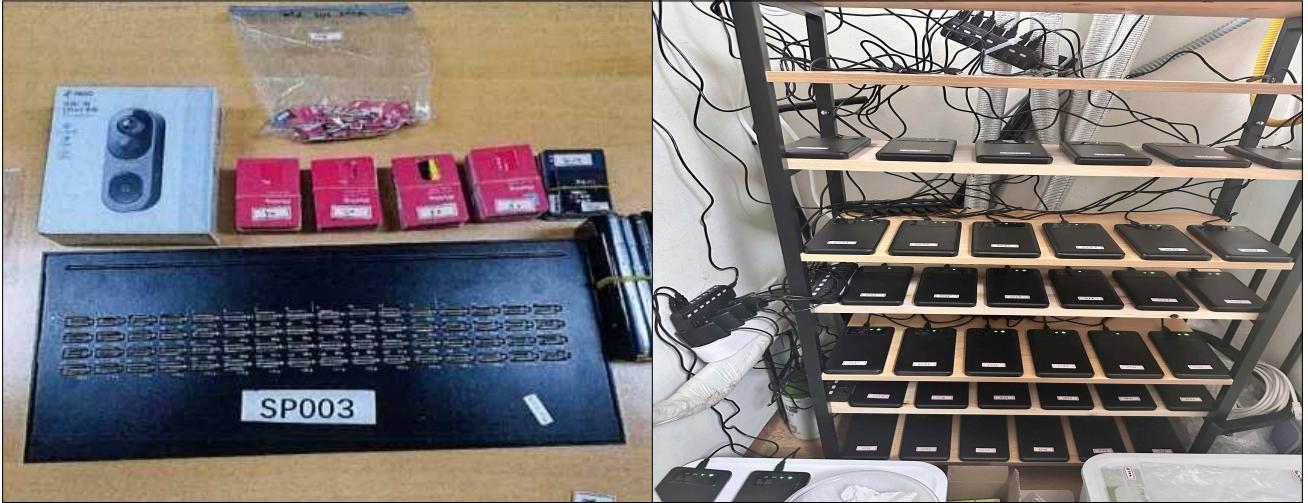
○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여 스미싱 문자 발송, 악성앱 유포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진화·확산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

### ▣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지속 전개

○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융·통신 분야의 제도상 미비점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,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·교육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☑



[참고사진]



구형 대형 중계기(64핀 모델) → 소형화된 신형 중계기



신형 중계기 실물을 세관에 제공하여 X-ray 촬영, 향후 통관 과정에서 단속 예정